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명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이 남성의 이미지
지각과 연령 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신 윤 경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이 남성의 이미지
지각과 연령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신 윤 경

인 준 서

신윤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셔츠와 재킷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규명하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남성 캐주얼의복의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연령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관찰자 입장에서 남성의 의복이미지를 이해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남성복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자료와 함께 남성복 의류업체에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남성복 소비자의 이미지에 대한 관리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남성 의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두 가지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A형)는 4×2(상의색×바지색)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B형)는 2×3×2(의복스타일×의복색×의복채도)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은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제작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색을 변화시켰으며, 얼굴과 신발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얼굴과 신발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0개의 자극물이 사용되었다. 시각적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7점 의미분척도 16개 문항이었으며, 자극물의 연령을 질문하는 문항과 피험자의 연령 및 전공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피험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여대생 280명이었다. 한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산출,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남성의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원은 사교성, 현시(顯示)성, 경연(硬軟)성, 남성성 요인의 4가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상의색(진회색/회색/연회색·흰색셔츠, 연회색·검정셔츠)과 바지색(감색, 베이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에서 상의색은 현시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회색·검정셔츠가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회색·흰색셔츠가 현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지색은 남성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감색이 베이지색보다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의복스타일(점퍼, 폴로셔츠), 의복색(빨강, 파랑, 노랑), 채도(고채도, 저채도)에 따른 이미지지각의 차이에서 의복스타일은 사교성과 경연성 차이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폴로셔츠가 점퍼보다 사교성과 경연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폴로셔츠 착용은 점퍼 착용보다 사교적이고 매력있으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은 남성성 평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파랑이 가장 남성적인 색으로 평가되었으며 노랑은 가장 남성적이지 않은 색으로 평가되었다. 채도는 사교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사교성과 현시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지각되어 고채도의 의복을 착용한 남성은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교성은 의복스타일(점퍼, 폴로셔츠)과 채도(고채도, 저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폴로셔츠는 고채도와 저채도 양쪽 모두에서 사교성 점수가 비슷하게 지각되었으나 점퍼는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사교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시성은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폴로셔츠의 경우는 채도에 따른 차이가 적은 편이었으나 점퍼는 차이가 커서 고채도의 점퍼가 저채도 점퍼보다 매우 현시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시성은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고채도의 노랑이 가장 현시성이 높았으며 파랑은 채도에 따른 차이가 낮은 편이었다. 남성성 평가는 의복색(빨강, 파랑, 노랑)과 채도(고채도,

저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파랑 의복은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남성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으나 빨강은 저채도가 고채도보다 남성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사교성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고채도 빨강점퍼가 사교성이 가장 높았고, 저채도 파랑점퍼가 사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지각대상자의 연령평가는 의복스타일(점퍼, 폴로셔츠) 및 채도(고채도, 저채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폴로셔츠가 점퍼보다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으며,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지각대상자의 연령평가는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빨강의복은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연령이 더 낮게 지각되었으며, 파랑의복은 채도 변화에 의한 연령차이가 없었다. 특히 노랑의복은 고채도의 의복이 저채도 의복보다 훨씬 더 젊어보였으며, 채도에 의한 큰 연령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랑의복은 채도 변화에 의한 시각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무채색의 재킷 중에서는 연회색재킷에 검정셔츠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연령이 젊게 평가되었고, 회색재킷에 흰색셔츠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연령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섯째, 부가적으로 의복스타일(점퍼, 폴로셔츠)과 의복색(빨강, 파랑, 노랑) 평가가 지각자의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남성성평가는 전공(인문사회계, 자연계), 의복스타일, 의복색의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빨강점퍼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자연계보다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노랑폴로셔츠에 대해서도 인문사회계가 자연계보다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파랑폴로셔츠의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파랑점퍼의 남성성은 높게 평가하였다. 자연계는 파랑점퍼와 파랑폴로셔츠의 남성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즉,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빨강 및 노랑의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여 의복색의 평가가 빨강과 노랑은 여성적인 색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함으로써 의복의 색이미지 평가 능력이 좀 더 높다고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의 폴로셔츠 착용은 점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채도 의복이 저채도보다 더 사교적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고채도의 빨강점퍼가 매우 사교적인 느낌을 주었다. 남성의 고채도 의복은 연령이 젊게 지각되었으나, 무채색의 재킷을 착용할 때는 재킷 안에 검정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흰색셔츠보다 연령이 젊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각자의 전공에 따라 의복색 평가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의복과 대인지각.....	3
2. 의복색의 이미지 평가.....	5
3. 남성의 의복색과 이미지 평가.....	9
4. 의복스타일과 이미지 평가.....	12
5. 남성의 의복스타일과 이미지 평가.....	1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9
1. 측정도구.....	19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3
IV. 결과 및 논의.....	24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24
2. 상의색 및 바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	25
3.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이미지 평가.....	27
4. 자극물의 연령 평가.....	34
5. 전공,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	37
V. 결론.....	3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의복색과 의복유형의 인상차원 및 이미지평가.....	18
<표 2> 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25
<표 3> 상의색과 바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26
<표 4>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27
<표 5>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자극물의 연령 평가의 차이.....	34
<표 6> A형 자극물에 따른 연령 평가의 차이.....	36
<표 7> B형 자극물에 따른 연령 평가의 차이.....	37
<표 8> 사교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평균치.....	33
<표 9> 남성성 평가에 대한 전공,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38

그림 목 차

<그림 1> 사진자극물.....	22
<그림 2> 사교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29
<그림 3> 현시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30
<그림 4> 현시성 평가에 대한 의복색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31
<그림 5> 남성성 평가에 대한 의복색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32
<그림 6> 사교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33
<그림 7> 자극물의 연령 평가에 대한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35
<그림 8> 남성성 평가에 대한 전공,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38
<그림 9> 사진자극물 P1-P8.....	부록
<그림 10> 사진자극물 P9-P16.....	부록
<그림 11> 사진자극물 P17-P20.....	부록

I. 서론

의복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의복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게 된다.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들에게도 의복은 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인간이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은 받아들여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Atkinton, Atkinson & Hilgard, 1983), 짧은 시간에 지각이 이루어질 때 처음 본 사람의 나이, 직업, 계층, 성격, 깔끔함, 성실성이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다(Horn & Gurel, 1981).

의복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복의 선, 형태, 소재,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달리 표현되며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복인지도와 선호하는 의복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의복이미지를 표현해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시각적 이미지 창출의 실제적인 면으로 각 요소 나름대로의 특성과 시각적 효과를 가지며 의복이미지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이미연, 1999).

의복색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로서 소비자의 의복 선택 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타인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의복색의 시각적 평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은 여러 가지 의복유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임지영, 1996; Francis & Evans, 1988; Vrij, 1997)에서 감색, 베이지색, 검정색 등의 색상 및 채도 변화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인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복의 시각적 평가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복에 치우쳐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또한 남성복 연구도 남성

포멀웨어의 착용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성복도 패션의 변화에 따른 편안한 스타일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최근에는 남성복의 캐주얼화가 증가되면서 남성이 착용하는 의복스타일과 색채가 폭 넓게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복의 스타일과 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채색 및 유채색을 포함한 남성의 캐주얼의복의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규명하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남성 캐주얼의복의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연령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관찰자 입장에서 남성의 의복이미지를 이해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남성복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자료와 함께 남성복 의류업체에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남성복 소비자의 이미지에 대한 관리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과 대인지각

지각이란 인간이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을 받아들여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특히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이라 한다. 대인지각은 그 대상 인물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적 소질을 지각하게 하는 정보나 단서는 타인의 언어, 신체동작, 안면표정, 비언어적인 표현 등이 있다(정양은, 1982).

대인지각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단서를 동적 단서(dynamic cue)와 정적 단서(static cue)로 분류하였는데, 동적 단서에는 표정, 몸짓, 행동 등이 포함되며, 높은 단계의 대인지각과정에서의 자극단서로 사용된다고 하였고, 정적 단서에는 신체적 특징과 의복이 포함되는데, 정적 단서 중 의복, 장신구 등은 주로 지각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각대상자가 가지는 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인지각은 자기를 참조해서 타인을 평가하므로 개인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심하며 지각 대상자에게 원인 귀속을 할 수 있고 지각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각대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 이론 중에서 의복과 관련된 인상형성(impression formation)이론과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의 내현성격 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인상형성 이론(Impression Formation Theory)

인상형성 이론 중 전반적인 인상을 일관성 있게 갖게 되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이론은 낱개의 여러 정보들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context)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즉 어떤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을 형태적 접근 또는 인지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또한 최종인상은 각 정보들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 최종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의 연구로는 중심특질에 관한 것이 있다(강해원, 1995).

Asch의 연구에서는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각 피험자들에게 7개의 특질들을 열거하고 그러한 특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7개의 특질 중 '따스하다'라는 특질만을 이와 반대되는 '차다'라는 특질로 바꾸었을 때 이 두 경우의 인상형성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따스하다-차다'라는 형용사가 중심특질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대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그 밖의 형용사는 주변특질이 되어 중심특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최종 인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양은, 1982, pp. 179-180).

(2) 내현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

인상형성 이론의 하나인 내현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에서 Bruner와 Tagiuri는 부분적인 정보인 개별적 특질정보가 타인이란 사회적 자극에서 주어지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성격특질들을 보충하여 그 사람에 대한 성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 같은 성격판단이 가능하려면 어떤 성격특질을 갖는 사람은 특정한 기타 여러 성격

특질들을 함께 갖는다는 성격 판단의 틀을 미리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성격 판단의 기초가 되는 틀을 내현성격 이론이라고 한다(정양은, 1982, p. 177).

이 이론은 성격특성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인지각에서 나타나는 후광효과(halo effect)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며 이 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에 대한 신념체계의 연구로 이어져 고정관념(stereotype)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조공호, 1986).

Schneider, Hastorf와 Ellsworth(1979, p. 174)는 내현성격이론을 성격특성 간의 상호관련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행동, 의복스타일, 비언어적 단서 및 신체적 특성의 상호연관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복연구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 의복색의 이미지 평가

색채는 의복에 있어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색의 상징성 및 색에 관련된 연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낸다(강혜원, 1995). 또한,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 중에서도 색은 복식의 미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요소라고 하였으며, 대인지각에 있어서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로서 지각되며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난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 작용, 색의 상징성 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해서 인상형성 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의 색은 인상형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현, 조공호(1995)의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파란색 수트 착용자는 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 수트 착용자보다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란색 수트 착용자는 빨강, 파랑, 흰색, 검정색 수트 착용자보다 깔끔하고 밝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 수트 착용자는 다른 수트 착용자에 비해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인상으로, 검정색 수트 착용자는 가장 깔끔하지 않으며 어두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강혜원(1995)의 의복색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드레스의 경우 검정색 드레스 착용자는 가장 사무적이고 격식을 차리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빨강색 드레스 착용자는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팬츠의 경우는 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였으며 파란색 착용자가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격식을 가장 덜 차렸으며 어린사람, 가장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 가장 매력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 등으로 지각되었다.

이명희, 강승희(1998)의 재킷색에 따른 여성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자는 빨강 재킷을 가장 능력있게 평가하였고 흰색, 회색, 검정 등의 무채색은 능력없게 지각하였다. 평가 요인에서 빨강색 재킷은 흰색 및 회색 재킷을 착용한 경우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되었고, 젊음 요인에서 빨강색 재킷은 흰색, 회색, 검정보다 젊게 평가되어 더 어려보이고 발달하게 지각되었다. 여성적 요인에서 빨강색 재킷과 흰색 재킷을 사용한 경우는 비교적 여성적으로 지각되었고, 회색과 검정색 재킷은 남성적으로 지각되었다.

김광경, 강혜원(1992)의 직장 여성의 남성적·여성적 의복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색은 능력이나 활동성 요인의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평가 요인에만 영향을 주어 검색 수트는 분홍색 수트보다 딱딱하고 차갑고 어

둑고 남성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으며,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서는 감색 스커트가 분홍색 스커트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있으며 노련하고 딱딱하여 남성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문직 관찰자는 사무직보다 감색 수트를 더 능력있는 인상으로 평가 하였다.

차미승(1992)의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의 색은 성숙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 형태보다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활동성과 편안성은 색채보다 형태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또한 의복의 형태를 동일하게 한 경우 파랑, 보라색이 성숙한 이미지로 평가되고 노랑은 어려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라색은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되었다. 빨강색과 보라색은 현시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빨강색이 현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현화, 박찬부(1997)의 연구에서는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으로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선호·평가 요인의 경우 유사조화가 대비조화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유사조화에서 한색의 치마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비조화에서는 한색의 치마색을 덜 선호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개성·주의집중성 요인에서는 대비조화가 유사조화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유사조화의 경우 대비조화에 비해 한색을 난색보다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하였다.

이혜숙, 김재숙(1998)의 한복색에 대한 이미지연구에서는 평가성 차원에서 남색이 가장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며 능력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현시성차원에서는 노랑이 가장 밝고 산뜻하며 가벼워서 눈에 두드러지는 색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녹색은 멋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강혜원, 고애란(1991)은 여자한복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자의 연령집단간

차이를 주어 평가하였는데 평가·품위 요인에 있어서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연두/청록색 배색을 더 보기 좋고 품위있다고 지각했으며 사치성·개성 요인에 있어서도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노랑/보라 배색을 좀 더 개성적이고 화사한 것으로 지각했다고 하였다.

표유경(1999)은 야구 유니폼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연구하였는데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능력있고 남성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선호평가 차원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했을 때 가장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남색 상의와 남색 선을 넣은 흰색하의 착용 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빨강색 상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 회색 상하의를 착용했을 때는 가장 능력없고 비활동적이며 현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색의 명도와 채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인지각 시에 의복스타일보다 의복 명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어두운 색 의복이 관리직 여성의 능력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선명한 색 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의복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Francis & Evans, 1987).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의 연구에서는 의복 선택 시 형태와 재질보다 색이 더 중요한 요소임이 나타났다. 평가성 인자는 무채색 계열이 노랑, 연두 계열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활동성 인자는 밝은 의복색이 가볍고 산뜻하여 활동적인 것으로, 어두운 의복색이 무겁고 칙칙하여 비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순색이 어려보이고 채도가 낮은 색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어서 활동성 인자는 명도와 채도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경숙(1996)은 색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빨강은 강한, 화려한, 발

랄한, 정열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다른 색보다 전달되는 이미지 특성이 많았으며, 파랑은 차가운, 냉정한, 남성적인, 젊어보이는, 침착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남색은 강한, 차가운, 냉정한, 남성적인, 침착한, 어두운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의복색은 의복의 유형, 맥락 등 여러 가지 변인과 함께 인상을 달리 평가하게 되며 능력, 활동, 개성, 매력, 평가 등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주어 이미지 평가의 정도를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성 의복색의 이미지 평가

남성 의복색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 의복에서 색은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소로 작용하며 남성의복에 사용되는 색은 크게 3가지로 기본색(basic color), 준기본색(semi-basic color), 유행색(fashion color)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기본색은 남성의복에서 자주 착용되는 색을 말하며, 준기본색은 매년 남성의복 부분에서 항상 나타나지는 않으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색을 의미한다. 유행색은 기본색이나 준기본색이라고 불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대중적이지 않다가도 생산자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유행색이 된다. 또한 유행색이 대중적이 된다고 해도 기본색과 준기본색은 사라지지 않고 공존하고 기본색 중 검은색은 엄격한 색(stark color)으로 가장 격식 차린 정도를 나타내며 감색(navy blue)은 격식을 덜 차린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어두운 회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남미우, 1992).

이향미, 김재숙(1998)의 의복의 격식차림과 의복색에 따른 남성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영향력은 의복색(감색, 적벽돌색), 지각자 성별, 맥락(교실, 야외), 의복 격식차림(정장, 캐주얼재킷, 점

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색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의복색은 평가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사교적 차원에서 좀 더 큰 인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가적 차원에서는 감색(navy blue) 의복이 적벽돌색(red brown) 의복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좀 더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교적 차원에서는 적벽돌색 의복이 감색 의복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더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lloy(1988)는 남성복에서 수트의 색이 어두울수록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였으며 검은색은 다른 어두운 색보다 더 권위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남색과 회색의 수트가 가장 신뢰감을 준다고 하였다.

이은미,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청년착용자와 중년착용자의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청년착용자의 경우 감색정장에서는 유사색 벵타이가 대비색 벵타이보다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지각된 반면 베이지색정장에서는 대비색 벵타이가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평가됨으로써 반대 경향을 보였다. 중년 착용자의 경우 감색보다는 베이지색 착용자가 더 멋있고 세련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감색보다는 베이지색이, 유사색 보다는 대비색 벵타이 착용자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현지(2003)는 남성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색 재킷-파랑색 셔츠-노랑색 벵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역동적인 인상이 형성되었고 회색/검정색 재킷-파랑색 셔츠-복합색 벵타이가 가장 역동적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성 요인은 감색/검정색 재킷-흰색 셔츠-감색 벵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높았고, 감색 재킷-흰색 셔츠-감색 벵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친근한 인상으로 인식되었으며 회색 재킷-파랑색 셔츠-빨강색 벵타이를 착용하였을 때 가장 거리감 있는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셔츠는

흰색이 파란색보다 더 친근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능력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할 때는 감색 양복에 유사한 배색의 넥타이가 무늬에 상관없이 효과적이지만 특히 줄무늬, 페이즐리무늬의 넥타이가 가장 능력있는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색 양복에 유사한색의 체크, 페이즐리, 줄무늬 넥타이가 점잖고 신중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사무적이고 전문적이고 지적이어서 능력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할 때는 감색 양복에 대비 배색된 줄무늬 넥타이를, 베이지색 양복에는 대비된 색의 넥타이는 어떤 무늬라도 상관없이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무늬종류와 상관없이 감색 양복에 대비된 색의 넥타이로, 베이지색 양복에는 유사한 색의 넥타이가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유진, 이명희(2004)는 남성정장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진남색 재킷이 회색 재킷 보다 능력, 품위, 선호평가, 남성성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흰색 셔츠는 파란색 셔츠보다 남성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현시성차원은 재킷색, 와이셔츠색, 넥타이색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흰색 셔츠는 남색 재킷에 빨간색 넥타이와 배색될 때, 파란색 셔츠는 남색 재킷에 파란색 넥타이와 배색될 때 가장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의복단서 중에서도 재킷, 즉 양복의 색이 가장 우선하는 단서로 사용되어 이미지 지각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남성 의복색이미지는 남성정장 착용자 위주의 연구가 많았으며 이미지 요인은 능력, 평가, 현시 등이 포함되어 의복색의 이미지가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의복색은 이미지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의복스타일과 이미지 평가

의복스타일이란 의복 유형과는 구분되는 의미로서 의복의 유행성, 의복이 미지, 매력성을 의미하며, 의복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상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김윤경, 2002).

Sweat과 Zentner(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드라마틱, 로맨틱, 클래식, 내추럴의 4가지 여성스타일에서 드라마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가장 비인습적인 사람으로, 로맨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가장 사회성이 높고 연약한 사람으로, 클래식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인습적이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으로, 내추럴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문영보(1992)는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적 의복스타일은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며 사회적인 의복스타일은 화려하고, 발랄하며, 우아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경숙(2002)의 연구에서는 지적인 스타일은 차분한, 고상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엘레강스한 의상은 개성적이고, 세련되며, 여성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류숙희, 김보연(2002)의 연구에서는 의복이미지가 대담성, 활동성, 매력성, 성숙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클래식한 스타일은 성숙하고 형식적이며 조심성 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한 스타일은 매우 활동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레강스한 스타일은 매력적이면서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틱한 스타일은 아주 매력적이면서 성숙해 보이며 대담하고 어느 정도 활동성을 지닌 이미지로 나타났다. 로맨틱한 스타일은 매력적이고 어리게 보이며, 매니쉬한 스타일은 대담하고 활동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1996)는 6개 스타일의 수트에 대한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 이미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목에 스카프를 두른 갈색 수트는 수수한, 보수적, 포멀한, 점잖은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더블단추에 세로 줄무늬가 있는 회색 수트는 남성적, 딱딱한, 현실적, 어두운,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노란색과 프린트 무늬가 있는 수트는 여성적, 낭만적, 밝은,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테일러드 칼라의 베이지색 재킷과 회색 스커트의 수트는 현실적, 평범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코사지로 장식한 샤넬수트는 여성적, 부드러운, 낭만적, 비활동적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청색 재킷과 플리츠가 있는 청색 스커트의 수트는 개성적, 유행을 따르는, 개방적, 캐주얼한, 활동적, 발랄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방희선(1998)의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녀 각각 5개의 의복스타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 착용자의 인상요인은 자신감/세련됨, 성실함, 학업우수성, 사교성의 4개 요인이었고, 여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요인은 성실함, 세련됨, 자신감, 사교성, 학업우수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남자와 여자 착용자에게 세련된 인상을 주는 스타일은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많이 입혀지는 의복스타일이었고, 성실한 인상에는 무난하고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학업우수성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윤경(2002)의 의복스타일, 색, 톤의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은 매력성, 품위성, 능력·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의 5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의복스타일은 매력성, 능력·활동성, 온유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재킷으로 구성된 캐주얼 스타일보다 바지·가디건으로 구성된 포멀 스타일은 매력성과 온유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능력·활동성은 포멀 스타일이 캐주얼 스타일보다 낮

게 평가되었다.

Paek(1986)은 4가지 여성복 스타일(대담한, 보수적인, 드레시한, 캐주얼한)의 흑백 선그림(line drawing)을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추론되는 성격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적인 스타일의 착용자는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지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대담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가장 성실하지 못하나, 가장 매력있고, 개인주의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드레시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타인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 가장 지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캐주얼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보수적인 스타일의 착용자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류숙희, 류지은(2001)은 6가지 여성복스타일의 그림을 제시하여 연구 하였다. 섹시(성적매력을 강조한 의복), 매니쉬(남성양복 느낌의 의복), 페미닌(귀여운 느낌의 의복), 드라마틱(대담한 디자인의 두드러지는 의복), 엘레강스(고전적인 우아한 의복), 캐주얼(약식의 간편한 의복)의 스타일을 연구한 결과 섹시한 의복은 가장 개성적·여성적이지만 품위없게 지각되었으며, 매니쉬한 의복은 개성적이고 품위있지만 여성적이지 않고, 페미닌한 의복은 여성적이고 감쪽하지만 개성적이지 않게 지각되었으며, 드라마틱한 의복은 개성적이지만 여성적이지는 않고 품위없게 지각 되었다. 엘레강스한 의복은 가장 품위없게 지각되었으며, 캐주얼한 의복은 가장 개성적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주현(1990)은 dress, suits, pants·blouse의 3가지 유형과 각 유형내의 세부적 측면 즉 하의길이, 칼라유형, 색상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 단서는 하의길이가 나타났다. dress와 suits 착용자는 하의길이가 짧을 때 더욱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어려보이고 특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pants 및 blouse에 있어서는 pants의 색상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 남성의 의복스타일과 이미지 평가

남성 의복스타일에 대한 이미지 평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ll(1991)은 4가지 남성복 스타일(대담한 유형, 보수적 유형, 포멀한 유형, 캐주얼한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지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담한 스타일은 매력적이지 않고 지적인 면은 없으나 매우 일반적인 차림이었고, 캐주얼 스타일은 매력적이지 않고 지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차림으로 지각되었다. 보수적 스타일은 매력적이고 지적이었으나 일반적인 차림은 아닌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캐주얼 유형보다 더 사회적으로 평가되었다.

Damhorst(1985)의 연구에 따르면, 정장 스타일의 착용자는 캐주얼 스타일의 착용자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은 관리직의 사람, 높은 지위를 맡은 사람이며 활동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남미우(1992)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 집단과 중년집단을 대상으로 상황, 의복 단서 및 관찰자 변인에 의한 남성 의복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조사하였다. 남성복을 의복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을 변화시켜 연구한 결과 의복유형은 활동성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정장은 상황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독특하고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었다. 캐주얼은 상황에 관계없이 활동적이었으나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정장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정장의 색, 정장 스타일, 벡타이 색)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은미(1992)의 연구 결과, 정장 스타일이 인상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성 활동성 요인에는 정장 스타일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특히, 싱글 정장이

더블 정장보다 더 매력있고 개성적이며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지현(199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외의(캐주얼 재킷, 점퍼)를 입혀 그에 대한 인상을 연구하였는데 재킷과 버튼다운 칼라셔츠의 조합은 점퍼와 버튼다운 칼라셔츠의 조합보다 매우 지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라운드형의 넥라인과 점퍼를 착용하였을 때는 매우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이선경, 고애란(1995)는 남성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대표적인 의복유형을 제시하고 직업을 추론시킨 결과 회사원(감색 싱글정장), 고위직(회색쓰리피스 싱글정장), 세일즈맨(카키색 더블정장), 연예인(겨자색 더블정장), 화가(청자켓, 베이지색 골덴바지 및 베레모), 노동자(카키색점퍼, 작업복)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적평가에 있어 고정관념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능력성, 개성, 소박성, 지배성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유형은 지배성 인상을 제외한 외모·능력성, 개성, 소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사원, 고위직, 세일즈맨의 의복유형은 매력적이고 품위있으며 능력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의 의복유형은 개성있고, 노동자의 의복유형은 소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남영, 강승희(2003)의 남성복의 의복유형에 따른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과 재킷/면바지 유형이 가장 품위있게 평가되었고 남방/청바지는 품위없게 평가되었다. 남방/면바지의 의복유형은 개성적으로, 재킷/청바지 유형은 개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남방/면바지와 남방/청바지는 재킷/면바지, 재킷/청바지보다 더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의복스타일은 정장과 캐주얼의복의 연구가 많이 연구되어졌으며 이미지 요인은 매력, 개성, 활동, 사교 등이 포함되어 의복스타일의 이미지가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복의 유형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좌우하는 변인임이 확인 되었다.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의 이미지 평가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 실험 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설계이다. 측정도구는 2가지 종류의 설계로 이루어진 남성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제시하는 사진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문항을 포함 하였다.

1) 자극물

(1)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사진자극물은 캐주얼을 착용한 남성의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다. 실험설계의 한계로 많은 수의 자극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실험설계로 나누어 조작하였으며 각 실험 설계별 변인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설계 A

4×2의 요인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상의색(4), 바지색(2)이며, 종속변인은 남성의 상의색 및 바지색에 따른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이다. A형 설계에서 상의의 의복스타일은 테일러드 칼라의 캐주얼재킷과 와이셔츠였는데, 재킷은 무채색을 사용하여 변화시켰다. 자극물 1, 2, 3은 진회색(N 3.5), 회색(N 6.0), 연회색(N 8.5)의 재킷에 흰색와이셔츠를 착용하였고, 자극물 4는 연회색재킷에 검정색와이셔츠를 착용하였으며, 하의는 면바지로서 베이지색(5Y 8.0/2)과 감색(3.0PB 3.5/3)을 사용하였다.

② 실험설계 B

2×3×2의 요인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의복스타일(2), 의복색(3), 의복채도(2)이며, 종속변인은 남성의 의복스타일, 의복색 및 채도에 따른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이다. B형 설계의 상의 의복스타일은 수띠엥(soutien)칼라의 점퍼와 폴로셔츠였는데, 점퍼와 셔츠는 모두 유채색을 사용하여 변화시켰다. 점퍼와 폴로셔츠의 색은 3가지 색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하였고, 채도는 먼셀의 표색계를 기준으로 고채도와 저채도로 구분하여 고채도의 빨강, 파랑, 노랑은 5R 5.0/10, 3.0PB 3.5/9, 5.0Y 8.0/14의 색을 사용하였고, 저채도의 빨강, 파랑, 노랑은 5R 5.0/6, 3.0PB 3.5/7, 5.0Y 8.0/7을 사용하였다. 하의는 모두 베이지색(5Y 8.0/2) 면바지를 착용하게 하였다.

(2) 의복스타일, 의복 색 선정

독립변인으로 사용되는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대해 살펴보면, 설계 A에서는 캐주얼재킷 착용자의 이미지 평가에 대한 설계로서 상의색과 바지색의 조합으로 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재킷의 경우는 무채색의 효과만을 보고자하여 상의는 진회색, 회색, 연회색, 연회색·검정셔츠 4가지 종류의 무채색만을 사용하였으며, 바지색은 일반적으로 소유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베이지색과 감색의 2가지 바지 색을 사용하였다.

설계B에서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의한 이미지 평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복스타일은 남성 의복활용도가 높은 폴로셔츠와 남성 수띠엥 칼라의 점퍼를 사용하였으며, 의복색은 유채색 중에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하였고 채도는 고채도와 저채도로 의복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먼셀의 표색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의 의복스타일은 남성의 캐주얼웨어로 춘추복 및 하복으로 구성하였다.

(3) 자극물 제작 방법

자극물은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이며, 자극물의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 발목까지를 제시하였다. 자극물에서 얼굴부분과 발목이하부분을 제외한 것은 자극물의 의복을 부각시켜 피험자들이 의복만의 이미지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선택된 자극물 사진을 포토샵(Adobe Photoshop Program)을 사용하여 실험목적에 맞게 색을 조작하였다. 배경색은 의복조각색이 다양한 이유로 다른 색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흰색에 가까운 하늘색(5BG 9.0/2)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설계A의 8개의 자극물과 설계B의 12개 자극물을 합하여 총 20개이며, 이렇게 조작된 자극물은 사진인화를 하였고 자극물 사진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5×17.5cm이었다.

완성된 자극물은 P1번에서 P2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P1~P8은 실험설계A에 속하는 자극물로서 P1은 진회색·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 P2는 진회색·흰색셔츠·검색바지, P3은 회색·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 P4는 회색·흰색셔츠·검색바지, P5는 연회색·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 P6은 연회색·흰색셔츠·검색바지를 착용한 것이고, P7은 연회색·검정셔츠·베이지색바지, P8은 연회색·검정셔츠·검색바지를 착용한 것이었다.

P9~P20은 실험설계B에 속하는 자극물로서 P9는 고채도의 빨강점퍼, P10은 저채도의 빨강점퍼, P11은 고채도의 파랑점퍼, P12는 저채도의 파랑점퍼, P13은 고채도의 노랑점퍼, P14는 저채도의 노랑점퍼를 착용한 것이고, P15는 고채도의 빨강폴로셔츠, P16은 저채도의 빨강폴로셔츠, P17은 고채도의 파랑폴로셔츠, P18은 저채도의 파랑폴로셔츠, P19는 고채도의 노랑폴로셔츠, P20은 저채도의 노랑폴로셔츠를 착용한 자극물이었다.

완성된 자극물 단서의 변인조작 내용과 자극물의 사진은 <그림 1>과 같다. a는 재킷 착용, b는 점퍼 착용, c는 폴로셔츠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림 1>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이미지지각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이은미, 강혜원, 1994; 김현지, 2003; 최유진, 2003; 강승희, 2005; 유숙희, 2005)에서 사용한 형용사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부록 1 참조).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켰다. 시각적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문항은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의미미분척도 16개 문항이었으며, 자극물의 연령을 질문하는 문항과 피험자의 연령 및 전공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지각자로서의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이었으며 한 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게 하였다. 따라서 각 자극물 1개에 28명의 피험자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는 조사원이 제시하는 자극물을 보고 각 형용사쌍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인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여대생 280명 이었으며, 피험자의 연령은 20대가 82.9%였고, 전공은 인문사회계가 42.9%, 자연계가 41.4%, 예체능계가 15.7%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9월이었고,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산출,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 평가 항목을 분류하기 위하여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16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2>과 같다.

요인 1은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세련된-촌스러운,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매력있는-매력없는, 능력있는-능력없는 등이 포함되어 사교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독특한-평범한,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개성적인-평범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등이 포함되어 현시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3은 캐주얼한-포말한, 부드러운-딱딱한,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등이 포함되어 경연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4는 차가운-따뜻한, 남성적인-여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남성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0 이상이었고 요인 4까지의 누적변량은 65.49%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는 사교성, 현시(顯示)성, 경연(硬軟)성, 남성성이 각각 .89, .81, .54, .57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교성 요인의 도출은 임남영, 강승희(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현시성, 경연성 요인의 도출은 차미승(1992), 김재숙 등(1998)의 연구와 일치 하였으며, 남성성 요인의 도출은 표유경(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의 요인은 각 요인의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경연성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요인1. 사교성	요인부하량	요인2. 현시성	요인부하량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83	독특한 - 평범한	.82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75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81
세련된 - 촌스러운	.74	개성적인 - 평범한	.70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73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60
적극적인 - 소극적인	.68		
매력있는 - 매력없는	.66		
능력있는 - 능력없는	.65		
고유치= 4.24, 변량(%)= 26.53, 누적변량(%)= 26.53, α 신뢰도= .89		고유치= 2.90, 변량(%)= 18.10, 누적변량(%)= 44.63, α 신뢰도= .81	
요인3. 경연성	요인부하량	요인4. 남성성	요인부하량
캐주얼한 - 포말한	.68	차가운 - 따뜻한	.82
부드러운 - 딱딱한	.67	남성적인 - 여성적인	.77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66		
고유치= 1.82, 변량(%)= 11.36, 누적변량(%)= 55.99, α 신뢰도= .54		고유치= 1.52, 변량(%)= 9.50, 누적변량(%)= 65.49, α 신뢰도= .57	

2. 상의색 및 바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

상의색과 바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주효과를 보면 상의색은 현시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교성, 경연성, 남성성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상의색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연회색·검정셔츠가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은 연회색·흰색셔츠, 진회색·흰색셔츠의 순이었으며, 회색·흰색셔츠가 현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상의색과 바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사교성 F	현시성 F	경연성 F	남성성 F
상의색(A)		3	1.85	2.99*	1.36	.62
바지색(C)		1	.05	.40	3.67	6.69*
A×B		3	.74	1.32	.04	2.38
집단 내 오차		216				
변인	속성	N	M	M	M	M
상의색	진회색·흰색셔츠	56	3.37	2.43ab	3.50	4.40
	회색·흰색셔츠	56	3.07	2.13b	3.13	4.27
	연회색·흰색셔츠	56	3.49	2.49ab	3.74	4.51
	연회색·검정셔츠	56	3.49	2.72a	3.69	4.27
바지색	베이지색	112	3.37	2.40	3.71	4.17
	감색	112	3.34	2.49	3.47	4.55

*p<.05 **p<.01 ***p<.001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되는 셔츠의 색인 흰색셔츠와 조합이 된 진회색, 회색, 연회색재킷은 평범하고 익숙하지만 연회색재킷과 검정셔츠의 배색은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되는 의복색이 아니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하고 개성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검정색의 심미적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이해숙, 김재숙(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이었으며, 최유진, 이명희(2004)의 회색 재킷에 흰색 셔츠는 현시성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바지색은 남성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교성, 현시성, 경연성 평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바지색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감색이 베이지색보다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색이

가장 능력 있고 남성적이라고 평가된 유경숙(1996), 이해숙, 김재숙(1998)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3.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이미지 평가

의복스타일, 의복색 및 채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변량원		<i>df</i>	사교성 <i>F</i>	현시성 <i>F</i>	경연성 <i>F</i>	남성성 <i>F</i>
의복스타일(A)		1	4.91*	.05	16.34**	.65
색상(B)		2	.76	1.70	2.19	13.23**
채도(C)		1	11.73**	37.00**	.85	.11
A×B		2	2.70	1.74	1.81	2.60
A×C		1	5.44*	6.10*	2.14	2.34
B×C		2	.58	3.54*	.16	3.16*
A×B×C		2	3.51*	1.57	.91	2.28
집단 내 오차		324				
변인	속성	<i>N</i>	<i>M</i>	<i>M</i>	<i>M</i>	<i>M</i>
의복스타일	점퍼	168	3.47	3.21	4.52	3.91
	폴로셔츠	168	3.69	3.18	4.94	3.83
의복색	빨강	112	3.56	3.04	4.82	3.82b
	파랑	112	3.51	3.22	4.58	4.20a
	노랑	112	3.67	3.33	4.79	3.58c
채도	고채도	168	3.76	3.58	4.78	3.88
	저채도	168	3.40	2.81	4.68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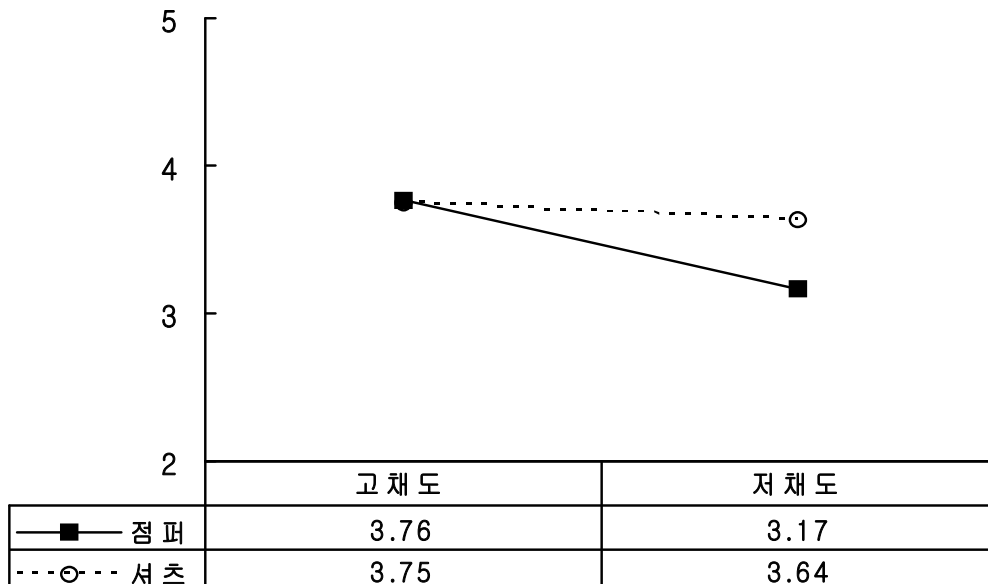
p*<.05 *p*<.01 ****p*<.001

<표 4>에서 주효과를 보면 의복스타일은 사교성과 경연성 평가에서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현시성, 남성성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복스타일의 평균치를 비교하여보면 폴로셔츠가 점퍼보다 사교성과 경연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폴로셔츠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외출복으로 착용되는 점퍼보다 폴로셔츠가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활동이 편안하고 격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점퍼보다 폴로셔츠가 사교성과 경연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Conner 등(1975)의 연구에서 의복이 사교적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주었던 결과를 지지하였고, 강승희(2005)의 연구에서 스웨터 차림이 점퍼보다 사교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의복색은 남성성 평가에서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교성, 현시성, 경연성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복색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파랑이 가장 남성적인 색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이 빨강이었으며, 노랑이 가장 남성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파랑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이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노랑은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색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가 때문에 노랑이 남성성이 낮게 평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명희, 홍선옥(2004)의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연구에서 노랑색이 여성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푸른색 계통이 남성성이 높게 평가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채도는 사교성과 현시성 차원에서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경연, 남성성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채도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사교성과 현시성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개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채도의 의복을 착용한 남성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서 타인으로부터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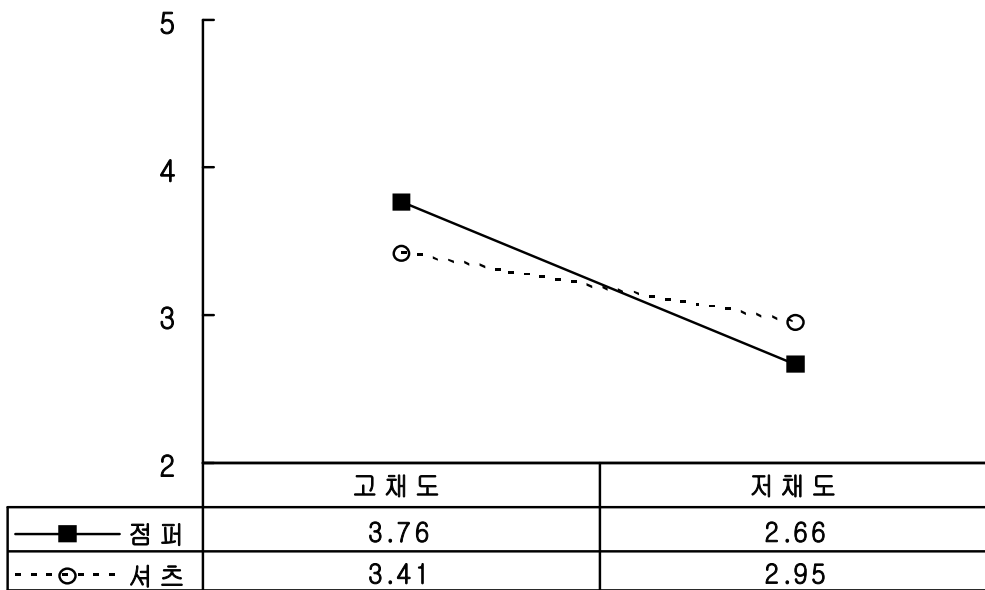
사교성은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폴로셔츠는 고채도와 저채도 양쪽 모두에서 사교성 점수가 비슷하게 지각되었으나, 점퍼는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사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결과에서 평가되었듯이 폴로셔츠는 점퍼보다 사교성과 경연성이 높은 의복스타일로서 의복색의 영향을 덜 받으며 저채도의 점퍼가 어두운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고채도의 점퍼는 적극적이고 밝은 느낌을 주므로 더 사교적으로 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어두운 의복색은 무겁고 비활동적으로 보인다고 평가된 이정옥 등(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림 2> 사교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현시성은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폴로셔츠의 경우는 채도에 따른 차이가 적은 편이었으나 점퍼는 차이가 커서 고채도의 점퍼가 저채도의 점퍼보다 매우 현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에 채도의 이미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채도의 의

복이 독특하고 개성적이지만 고채도의 폴로셔츠는 일반적으로도 흔히 착용하고 있어 독특하고 개성적이라고 느끼기엔 어렵게 생각되어진다. 고채도의 점퍼는 남성의 착용이 흔하지 않고 폴로셔츠 보다 시각적 면적이 커서 눈에 띄기 쉬우므로 타인으로부터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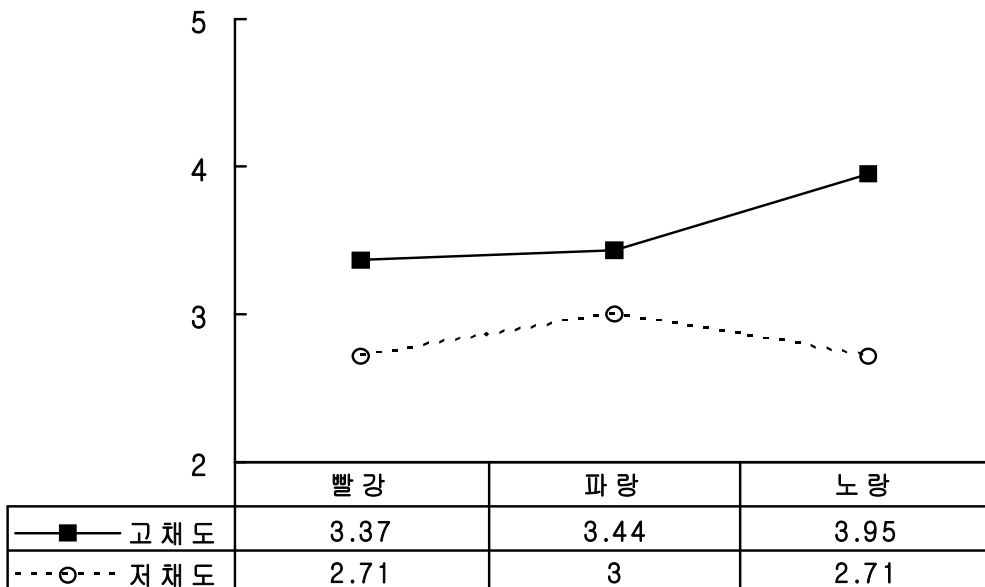


<그림 3> 현시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현시성은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의복색에 상관없이 현시성이 모두 높았으며 이는 고채도가 저채도 보다 눈에 띄고 시각적으로 더 자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랑의 고채도가 가장 현시성이 높았으며 저채도의 빨강과 노랑이 가장 현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는 남성의 의복색으로 노랑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눈에 띄는 색으로 평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희, 홍선옥(2004)의 연구에서 노랑은 개성적인 이미지라고 평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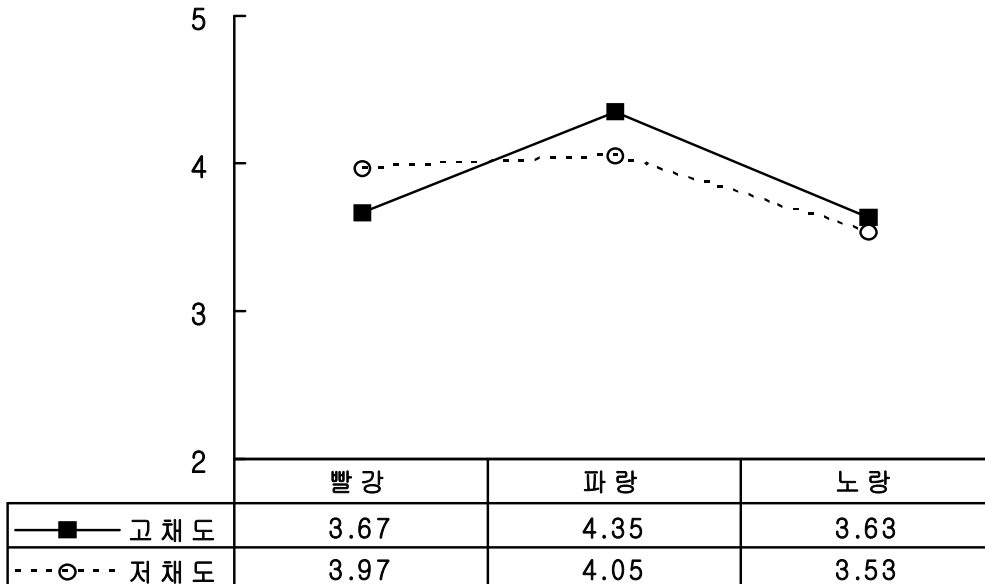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림 4> 현실성 평가에 대한 의복색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남성성은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남성성 평가는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파랑의복은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남성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으나, 빨강은 저채도가 고채도보다 남성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노랑의복은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남성성이 높게 지각되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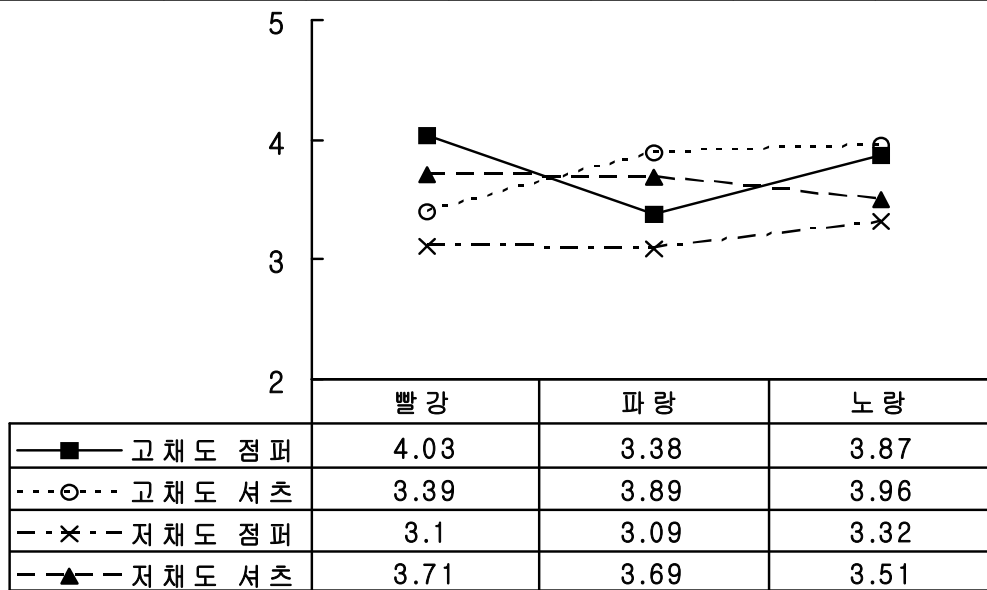


<그림 5> 남성성 평가에 대한 의복색과 채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표 4>에서 보면 사교성 평가 차원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 8>, <그림 6>과 같다. 빨강점퍼, 파랑점퍼, 노랑점퍼, 빨강폴로셔츠, 파랑폴로셔츠, 노랑폴로셔츠의 6가지 배합의 착용에 있어서 고채도와 저채도의 사교성 평가의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보면, 고채도의 빨강점퍼가 사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빨강점퍼가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채도의 점퍼는 모든색이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빨강점퍼에 관한 결과는 빨강색 옷차림이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된 이주현, 강혜원(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8> 사교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평균치

의복스타일 채도	의복색	점퍼			폴로셔츠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고채도		4.03	3.38	3.87	3.39	3.89	3.96
저채도		3.10	3.09	3.32	3.71	3.69	3.51



<그림 6> 사교성 평가에 대한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4. 자극물의 연령 평가

점퍼 및 폴로셔츠의 의복스타일, 빨강, 파랑, 노랑의 의복색, 고채도, 저채도의 채도에 따른 자극물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자극물의 연령 평가의 차이

변량원		df	연령 F
의복스타일(A)		1	240.32**
색상(B)		2	.49
채도(C)		1	22.64**
A×B		2	.32
A×C		1	3.02
B×C		2	7.29**
A×B×C		2	.08
집단 내 오차		324	
변인	속성	N	M
의복스타일	점퍼	168	42.64
	폴로셔츠	168	31.76
색상	빨강	112	37.36
	파랑	112	37.51
	노랑	112	36.71
채도	고채도	168	35.53
	저채도	168	3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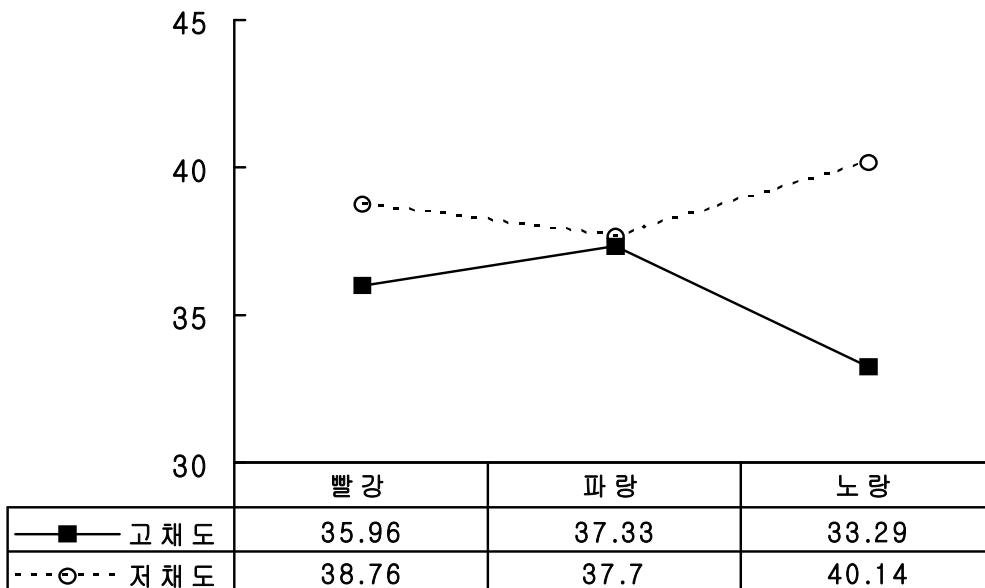
*p<.05 **p<.01 ***p<.001

<표 5>에서 주효과를 보면 의복스타일과 채도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의복색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폴로

서츠가 점퍼 보다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으며, 저채도 보다 고채도가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는 고채도가 저채도 보다 더 밝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극물의 연령은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빨강의복과 노랑의복 모두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지만 노랑의복이 빨강의복보다 더 큰 연령평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파랑의복은 채도에 의한 연령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랑의복이 채도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각적인 연령평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자극물의 연령 평가에 대한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상의색과 바지색에 따른 연령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에서 A형 자극물에 따른 연령은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회색재킷·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p3)가 46.88세로 a집단에 속하여 가장 연령이 높게 평가되었고, 회색재킷·흰색셔츠/감색바지(p4), 연회색재킷·흰색셔츠/감색바지(p6)순으로 연령이 높게 평가된 반면 연회색재킷·검정셔츠/감색바지(p8)가 36.79세로 가장 젊게 평가되었다.

<표 6> A형 자극물에 따른 연령 평가의 차이

자극물	p8	p7	p5	p2	p1	p6	p4	p3
그림연령	36.79	37.46	39.63	39.68	40.75	43.39	43.45	46.88
F=3.90**								

*p<.05 **p<.01 ***p<.001,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1: 진회색재킷·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 p2: 진회색재킷·흰색셔츠/감색바지

p3: 회색재킷·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 p4: 회색재킷·흰색셔츠/감색바지

p5: 연회색재킷·흰색셔츠/베이지색바지 p6: 연회색재킷·흰색셔츠/감색바지

p7: 연회색재킷·검정셔츠/베이지색바지 p8: 연회색재킷·검정셔츠/감색바지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자극물의 연령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B형 자극물에 따른 연령은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저채도 노랑점퍼(p14)가 46.36세로 a집단에 속하여 연령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저채도 빨강점퍼(p10), 저채도 파랑점퍼(p12)가 a집단과 b집단에 속하여 저채도 노랑점퍼(p14)다음으로 높은 연령으로 평가된 반면 고채도 노랑

폴로셔츠(p19)가 28.46세로 f집단에 속하여 연령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따라서 저채도의 노랑점퍼와 저채도의 빨강, 파랑점퍼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의복스타일로 지각되었고, 고채도의 노랑폴로셔츠가 가장 젊어 보이는 의복스타일로 평가 되었다.

<표 7> B형 자극물에 따른 연령평가의 차이

자극물	p19	p15	p18	p16	p17	p20	p13	p9	p11	p12	p10	p14
그림연령	28.46	30.95	32.21	32.30	32.68	33.93	38.11	40.98	41.98	43.18	45.21	46.36
F=25.66												

*p<.05 **p<.01 ***p<.001, a, b, c, d, e, f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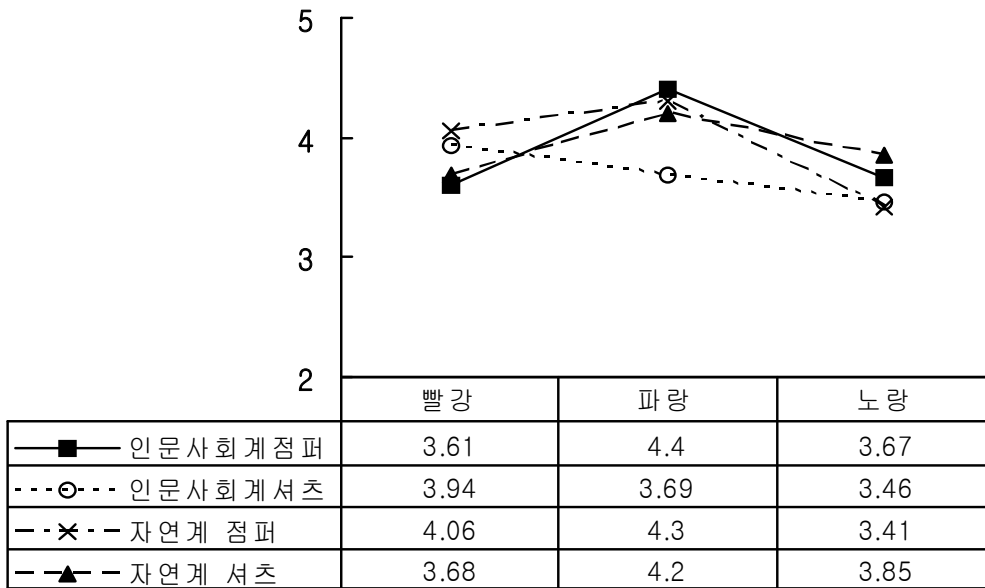
p9: 고채도 빨강점퍼 p10: 저채도 빨강점퍼 p11: 고채도 파랑점퍼 p12: 저채도 파랑점퍼
 p13: 고채도 노랑점퍼 p14: 저채도 노랑점퍼 p15: 고채도 빨강셔츠 p16: 저채도 빨강셔츠
 p17: 고채도 파랑셔츠 p18: 저채도 파랑셔츠 p19: 고채도 노랑셔츠 p20: 저채도 노랑셔츠

5. 전공,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

부가적으로 지각자의 전공과 의복유형, 의복색에 따라 이미지 평가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나누었고, 예체능계는 인원수가 적으므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지각자의 전공은 주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성의 평가에서 전공(인문사회계, 자연계), 의복스타일(점퍼, 폴로셔츠), 색(빨강, 파랑, 노랑)에 의한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3.87, P=.02). 그 결과는 <표 9>, <그림 8>과 같다.

<표 9> 남성성 평가에 대한 전공,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의복스타일 \ 전공 색	인문사회계			자연계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점퍼	3.61	4.40	3.67	4.06	4.30	3.41
폴로셔츠	3.94	3.69	3.46	3.68	4.20	3.85



<그림 8> 남성성 평가에 대한 전공,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빨강점퍼에 대하여 인문사회계지각자는 자연계보다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노랑폴로셔츠에 대해서도 인문사회계지각자가 자연계보다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파랑폴로셔츠의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파랑점퍼의 남성성은 높게 평가하였다. 자연계는 파랑점퍼와 파랑폴로셔츠의 남성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즉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의복색과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빨강 및 노랑의 남성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의복색의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와 일치함으로써 의복의 색이미지 평가능력이 높다고 해석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무채색과 유채색을 포함한 남성의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고, 관찰자 입장에서 남성의 의복색과 의복스타일, 채도에 따른 연령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성의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킷, 셔츠, 점퍼, 폴로셔츠, 바지의 배색을 달리한 20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 총 28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의복이미지 차원은 사교성, 현시(顯示)성, 경연(硬軟)성, 남성성의 요인의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정된 4개의 요인은 상호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사교적이미지가 높을수록 자신있으며, 적극적으로 지각되고, 현시성이 높을수록 독특하고, 개성있게 지각되며, 경연성이 높을수록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평가되었다. 또한 남성적이미지가 높을수록 차갑고, 남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상의색과 바지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에서 상의색은 현시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회색·검정셔츠가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회색·흰색셔츠가 현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지색은 남성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감색이 베이지색보다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의복스타일, 의복색, 채도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차이에서 의복스타일은 사교성과 경연성 차이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폴로셔츠가 점퍼보다

사교성과 경연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폴로셔츠 착용은 점퍼 착용보다 사교적이고, 매력있으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은 남성성 평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파랑이 가장 남성적인 색으로 평가되었으며, 노랑은 가장 남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채도는 사교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사교성과 현시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지각되어 고채도의 의복을 착용한 남성은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교성은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폴로셔츠는 고채도와 저채도 양쪽 모두에서 사교성 점수가 비슷하게 지각되었으나, 점퍼는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사교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시성은 의복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폴로셔츠의 경우는 채도에 따른 차이가 적은 편이었으나 점퍼는 차이가 커서 고채도의 점퍼가 저채도 점퍼보다 매우 현시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시성은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고채도의 노랑이 가장 현시성이 높았으며, 파랑은 채도에 따른 차이가 낮은 편이었다. 남성성 평가는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파랑의복은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남성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으나, 빨강은 저채도가 고채도보다 남성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사교성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고채도 빨강 점퍼가 사교성이 가장 높았고, 저채도 파랑 점퍼가 사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지각대상자의 연령 평가는 의복스타일 및 채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폴로셔츠가 점퍼보다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으며,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지각대상자의 연령 평가는 의복색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빨강의복은 저채도보다 고채도가 연령이 더 낮게 지각되었으며, 파랑의복은 채도 변화에 의한 연령차이가 없었다. 특히 노랑의복은 고채도의 의복이 저채도 의복보다 훨씬 더 젊어보였으

며, 채도에 의한 큰 연령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랑의복은 채도 변화에 의한 시각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무채색의 재킷 중에서는 연회색재킷에 검정셔츠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연령이 젊게 평가되었고, 회색재킷에 흰색셔츠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연령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섯째, 부가적으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평가가 지각자의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남성성 평가는 전공, 의복스타일, 의복색의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빨강 점퍼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자연계보다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노랑폴로셔츠에 대해서도 인문사회계가 자연계보다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파랑폴로셔츠의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파랑점퍼의 남성성은 높게 평가하였다. 자연계는 파랑점퍼와 파랑폴로셔츠의 남성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즉 인문사회계 지각자는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빨강 및 노랑의 남성성을 낮게 평가하여 의복색의 평가가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함으로써 의복의 색이미지 평가 능력이 좀 더 높다고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남성의 의복이미지의 요인은 사교성, 현시성, 경연성, 남성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남성의 폴로셔츠 착용은 점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채도 의복이 저채도보다 더 사교적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고채도의 빨강점퍼가 매우 사교적인 느낌을 주었다. 남성의 고채도 의복은 연령이 젊게 지각되었으나, 무채색의 재킷을 착용할 때는 재킷 안에 검정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흰색셔츠보다 연령이 젊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각자의 전공에 따라 의복색 평가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성의 의복이미지 평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남성의 캐주얼웨어 선택 시 의복에 따른 이미지 연출에 보다 나은 이미지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대상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여대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연령층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자극물의 제작에 있어서 의복유형별로 한 벌씩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다양한 의복유형과 의복색의 단서들을 조합하지는 못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캐주얼웨어 이 외에도 다양한 의복유형과 의복색의 자극물을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셔츠와 바지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을 체계화시켜 의복스타일과 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극물 제작에서 소재의 재질이나 무늬, 의복간의 배색, 의복의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의복단서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얼굴을 포함하지 않은 자극물로 제작되어 이미지를 평가를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얼굴유형과 신발색도 다양하게 변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얼굴유형과 의복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승희(2005).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지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 강혜원, 고애란(1991).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김광경, 강혜원(1992). 남성적 · 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I) : Suit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1-20.
- 김윤경(2002). 의복스타일, 색, 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강경자(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재숙, 이혜숙, 김연지, 송영숙(1998). 한복의 무늬배열, 무늬형태, 의복색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국화무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1(1), 37-47.
- 김현주(1996).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이미지와와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2003). 남성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우(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숙희, 김보연(2002).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스타일 이미지평가와 선택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2), 227-238.
- 류숙희, 류지은(2001). 여성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지각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4), 639-650.
- 문영보(1992).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희선(1998).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
- 유경숙(2002). 성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복식, 52(3), 87-98.
- 유숙희(2005). 남성정치인의 외모 이미지와 지각자 특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대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강승희(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명희, 홍선옥(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55-66.
- 이미연(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 고애란(1995). 남성 의복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I) : 직업 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565-579.
- 이은미, 강혜원(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97-210.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한국 도시 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강혜원(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주현, 조궁호(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지현(1993). 남성 캐주얼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미, 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 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현화, 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 여자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임남영, 강승희(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임지영(1996). 빅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양은(1982). 사회심리학. 서울 : 법문사, 177.
- 조궁호(1986). 대인지각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

- 구소, 8, 197-223.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진(2003). 남성의 재킷, 셔츠, 넥타이 색의 변화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진, 이명희(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131-140.
- 표유경(2000).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정양은(1982).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179-180에서 재인용.
- Atkinton, R. L., Atkinton, R. C. & Hilgard, E. R.(1983). *Introduction to psychology* 8th ed., 이훈구 역(1984). 현대심리학 개론. 개정·증보판, 서울: 정민사.
-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
- Conner, B. H., Peters, K. & Nagasawa, R. H. (1975). Person and costume :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32-41.
- Damhorst, M. L. (1985)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39-48.
- Francis, S. K., & Evans, P. K.(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and Motor Skills*, 64(2), 383-390.

- Francis, S. K., & Evans, P. K.(1988). Effect of hue, value, and garment style on college recruiters' assessments of employment potential. *Perception and Motor Skills*, 67, 87-98.
-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p. 159.
- Molloy, J. T. (1988). *New dress for success*. New York : Warner Books Inc., 이진 역(2005). 성공하는 남자의 옷차림. 서울: 황금가지, p. 81.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Schneider, D. J., Hastorf, A. H., & Ells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 (2nd ed.). Reading, Ma : Addison-Wesley, p. 174.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51에서 재인용.
- Sweat, S. J., & Zentner, M. A.(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 Heath/Lexington Book, pp. 321-336.
- Vrij, A. (1997). Wearing black clothes: The impact of offenders' and suspects' clothing on impression form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47-53.

Abstract

The Effects of Clothing Styles and Colors on the Perception of Image and the Evaluation of Age for Men

Youn-Kyung Shi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ors and styles of male clothing on the perception of image and age evaluation.

A quasi-experimental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measurement tools included stimuli presenting the image of male wearers, an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responses of perceivers.

This study employed two factorial designs to change clothing colors: The first type (Type A) was the 4×2 (color of tops \times color of trousers) factorial design, and the second type (Type B) was the $2 \times 3 \times 2$ (style \times color \times saturation) factorial design. To create stimuli, photos were taken, in which the model wears experimental clothes, and changes were made to the color of clothes by the use of the Photoshop software. In order to control over the influence of the face and the shoes, they were excluded from the photos.

For the stimuli 1, 2, and 3, models wore a white dress shirt with dark gray, gray and light gray jackets respectively, and for the stimulus 4, a model wore a black dress shirt with a light gray jacket. For the lower part, models wore beige and navy blue cotton trousers. The type B clothing design was soutien colored jacket and polo shirts. For the color of jacket and polo shirt, red, blue and yellow were used with high range saturation and low range saturation. All models wore beige-colored cotton trousers. In total, 20 stimuli were used in this study.

As the measurement tool for the evaluation of image, 16 questions with 7 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 were used, including 1 question asking about the age of the stimulus and questions asking about the subject's ages and majo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280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with a design that 1 subject should show reactions to 2 stimula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reliability coefficient, one-way ANOVA, two-way ANOVA, thre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s.

Firstly, from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are 4 factors including sociability, conspicuousness, softness, and masculinity.

Secondly, the analyses of the difference in the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upper garment and trouser color reveal that the color of upper garment mak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age perception in terms of conspicuousness. So, a light gray jacket and a black dress

shirt showed the highest level of conspicuousness, and the wearing of a gray jacket and a white dress shirt has the low level of conspicuousness.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color of trouser made a significant effect in terms of masculinity so that navy blue trousers showed higher level of masculinity than the beige-colored trousers.

Thirdly, from the result of analyses on the difference in the image perception by clothing style, clothing color and saturation, it was found that shirts showed the higher level of sociability and softness than jackets. Among the clothing colors, it was evaluated that blue has the highest level of masculinity and it was perceived that higher saturation showed higher level of sociability and conspicuousness than lower saturation.

Fourthly,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sociability according to clothing style and 2 variables of saturation. As for the shir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higher saturation or lower saturation, observers perceived the similar level of sociability. When it comes to the evaluation of masculinity,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according to the clothing color and saturation blue clothing with higher saturation showed the higher level of masculinity than the lower saturation, and red clothing with lower saturation showed the higher level of masculinity than the higher saturation. As for the evaluation of sociability, there were interactive effects according to 3 independent variables; the red jacket with the higher saturation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ociability, and the blue jacket with the lower saturation showed the lowest level of sociability.

Fifthly, when it comes to the age evaluation toward men wearer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clothing style and the level of saturation the shirt was perceived younger than the jacket, and the higher saturation was perceived younger than the lower saturation. Among the jackets of achromatic colors, a wearer with a light gray jacket and a black shirt was evaluated as the youngest, and a wearer with a gray jacket and a white shirt was evaluated as the oldest.

Generally speaking, a male wearer with a polo shirt was more positively evaluated than others with a jacket, and the clothing with higher saturation was more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the sociability than the lower saturation. Particularly, the red jacket with higher saturation gave very sociable feeling. A male wearer of achromatic clothing was perceived as young age, but it was found that when wearing an achromatic jacket, a black shirt is evaluated as the young age.

<표 1>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의 이미지 평가

구분	연구자(년도)	지각자, 관찰자	의복색	의복스타일	이미지 구성 요인, 평가 내용
의복색 이미지	강혜원, 고애란(1991)	여대생, 중년여성	전통적 배색(페백시 시어머니, 페백시 신부), 현대적 배색(분홍/보라, 노랑/보라, 연두/청록, 연두/꽃분홍)	한복(저고리, 치마)	평가-품위, 사치성-개성, 실용성
	김광경, 강혜원(1992)	남녀 직장인	분홍색, 감색	여성복: 가장 남성적인 수트/ 약간 남성적인 수트/ 가장 여성적인 수트/ 약간 여성적인 수트	활동성, 능력, 평가
	김윤경(2002)	여대생, 40·50대 중년여성	무채색, 유채색(보라색) 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포멀 스타일(원피스, 자켓), 캐주얼 스타일(가디건, 바지),	매력성, 품위성, 능력/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유경숙(1996)	남녀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남녀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주황, 남색, 분홍	남성복: 티셔츠, 남방, 재킷	따뜻한-차가운, 발달한-정잡은, 강한-약한, 고귀한-서민적인
	이명희, 강승희(1998)	남녀 대학생	흰색, 회색, 검정, 빨강	여성복: 데일러드 재킷, 폴로넥 셔츠	능력, 품위, 평가, 젊음, 여성적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여대생	기본9색 명도,채도별 4단계 36개, 기본색 5개, 무채색4개 (합계: 45개)	여성복: 라운드 네크라인의 T셔츠(상반신)	평가성, 활동성, 조화성
	이주현, 강혜원(1995)	여대생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	여성복: 수트/원피스/팬츠-블라우스	원피스(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매력-평가, 품위, 깔끔함, 부드러움), 팬츠-블라우스(평가-외모, 품위,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부드러움, 적극성)
	이주현, 조근호(1995)	여대생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	여성복: 수트/원피스/팬츠-블라우스	수트: 능력-활동성, 깔끔함-평가, 품위, 외모- 매력, 주의 집중성
	이현화, 박찬부(1992)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색, 난색(유사조화, 대비조화)	한복(저고리, 치마, 갓, 고름)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성, 젊음, 친화
	이혜숙, 김재숙(1998)	남녀 대학생	노랑, 빨강, 녹색, 남색, 회색	한복(저고리, 치마)	사회성,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
	차미승(1992)	여대생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원피스형(실루엣: H, A, V, X 라인)	성숙성, 매력성, 편안성, 현시성, 경연성
	표유경(1999)	20·30대 남녀	상의(흰색, 회색, 남색, 빨강색, 수직 스트 라이프), 하의(흰색, 검정, 회색, 수직 스트 라이프), 선 장식(남색, 빨강, 검정, 노랑)	야구복(상/하의)	남성적, 능력, 활동성, 선호 평가, 현시성
	Francis & Evans, (1987)	여대생	빨강, 초록 (고명도, 저명도)	8가지 스타일의 블라우스	감정, 사교성, 융통성, 정확성, 전형성, 흥분성
	남성 의복색 이미지	김현지(2003)	성인남녀	재킷(검정색, 감색, 회색), 셔츠(흰색, 파란 색), 넥타이(빨강/감색/노랑스트라이프, 복 합색의 규칙적 무늬)	남성정장(재킷/셔츠/넥타이)
남미우(1992)		남자대학생, 40·50대 직장남성	정장(olive green, navy blue) 캐주얼(orange/beige), 바지(회색)	남성복(정장/캐주얼)	평가, 활동성, 독특성
이은미, 강혜원(1994)		직장남성(20대, 40·50대)	정장(감색, 베이지색) 넥타이(유사색, 빨강색)	남성복: 싱글정장, 더블정장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평가
이향미, 김재숙(1998)		남녀 고등학생	감색, 적벽돌색	남성복: 정장차림, box형의 재킷차림, 정퍼차림	평가적, 사교적, 외모-매력적, 역동적
임지영(1996)		여대생	정장(감색, 베이지색), 넥타이(유사색, 노랑 색, 빨강색), 넥타이무늬(무지, 줄무늬, 물 방울, 체크, 페이즐리, 꽃, 추상)	싱글정장	매력성, 능력성, 독특성, 온유성
최유진, 이명희(2004)		20·30대 남녀	재킷색-진남색, 회색 와이셔츠색-흰색, 파란색 넥타이색-빨간색, 파란색	단추3개의 싱글재킷, 레귤러 칼라 셔츠, 무지 넥타이	능력, 품위, 활동성, 선호평가, 남성성, 현시성
의복스 타일 이미지	김현주(1996)	40세 미만 성인여성	-	스타일A(스카프 착용 갈색수트), 스타일B(더블 단추/세로줄무늬 회색수트), 스타일C(강한프린 트의 노랑수트), 스타일D(베이지색 싱글재킷, 회색셔츠), 스타일E(코사지 있는 샤넬라인 수 트), 스타일F(청재킷과 주름 청셔츠)	화려한-수수한, 캐주얼한-수수한
	류숙희, 김보연(2002)	성인여성	-	클래식, 캐주얼, 엘레강스, 드라마틱, 로맨틱, 매니쉬 스타일	대담성, 활동성, 매력성, 성숙성
	류숙희, 류지은(2001)	성인남녀	-	섹시, 매니쉬, 페미닌, 드라마틱, 엘레강스, 캐 주얼	개성, 품위성, 여성성, 끈적성
	문영보(1992)	여대생	-	블라우스, 셔츠 (의복무늬: 단색, 줄무늬, 점무늬)	지적, 사회적, 활동적
	방희선(1998)	남녀 중·고등학생	-	남자의복 5가지: 폴로셔츠/일자면바지, 타이트 한 정장재킷/바지, 활형한 폴로셔츠/힙합바지, 점퍼/타이트한 바지, 겹쳐 입은 면 티셔츠/활형 한 면바지 여자의복 5가지: 폴로셔츠/일자면바지, 비치는 블라우스/무릎길이 벨 셔츠, 활형한 티셔츠/ 힙합바지, 데님점퍼/미니셔츠, 겹쳐 입은 면 티셔츠/활형한 면바지	남자-자신감-세련성, 성실함, 학업우수성, 사 교성 여자-성실함, 세련됨, 자신감, 사교성, 학업우 수성
	유경숙(2002)	남녀 대학생	-	지적인, 엘레강스한, 귀여운, 포멀한, 캐주얼한, 섹시한, 세련된, 로맨틱한, 개성적인 스타일	이미지평가
	Sweat & Zentner(1985)	남녀 대학생	-	드라마틱, 로맨틱, 클래식, 내추럴 스타일	인습적, 경연성, 사회적, 세련성(격식차림)
남성 의복스 타일 이미지	남미우, 강혜원(1994)	남자대학생, 중년남성	-	남성복: 정장/캐주얼	평가, 활동성, 독특성
	이선경, 고애란(1995)	남녀 대학생	-	남성복: 회사원, 고위직, 세일즈맨, 연예인, 화 가, 노동자스타일	외모/능력성, 개성, 소박성, 지배성
	이지현(1993)	남녀 대학생	-	남성복: 캐주얼(재킷, 점퍼, 셔츠) 셔츠의 칼라형태(라운드형, 비대칭형, 버튼다운 형, 크로스 머플러형, 터틀형)	유행/심미성, 브랜드지향/신분상징성, 합리적외 모지향성, 진보적 사회참여성, 적극적 개성추 구형
	임남영, 강승희(2003)	남녀 대학생 및 직장인	-	남성복: 재킷/남방+청바지, 재킷/남방+면바지	품위, 활동성, 개성, 사교성
	Bell(1991)	성인남녀	-	대담한 유형, 캐주얼한 유형, 보수적 유형, 포 멀한 유형	매력성, 능력성, 사회성
	Damhorst(1985)	사무직 성인남녀	-	남녀 모두 정장 착용/ 여성은 정장 착용, 남성은 캐주얼 의복 착용/ 남녀 모두 캐주얼 의복 착용/ 남성은 정장 착용, 여성은 캐주얼 의복 착용	서술형의 자유응답(상호작용행동, 역할, 지위, 주제, 특질 등을 서술)

<부록 1> 이미지측정 형용사쌍의 내용과 출처

형용사쌍 문항내용	출 처				
	이은미 강혜원 (1994)	김현지 (2003)	최유진 (2003)	강승희 (2005)	유숙희 (2005)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	○	○	○	
지적인-지적이지않은	○		○	○	○
세련된-촌스러운	○		○	○	
사교적인-비사교적인	○		○		
적극적-소극적		○	○	○	○
매력있는-매력없는	○	○	○		
능력있는-능력없는			○		
독특한-평범한	○				
눈에 띄는- 눈에 띄지않는	○		○		○
개성적인-평범한	○		○	○	○
활동적인-비활동적인	○		○	○	
캐주얼한-포말한				○	
부드러운-딱딱한	○				○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	○	
차가운-따뜻한	○				○
남성적인-여성적인			○		

<부록 2>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의복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으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 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신 윤 경

지도교수 : 이 명 희

* 다음은 의복이미지를 나타내는 양극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각각의 형용사에 대하여 제시된 남성사진의 의복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한 개의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응답요령>

- 예 1. 멋있는 ----- ①✓ - 2 - 3 - 4 - 5 - 6 - 7 ----- 멋없는
↳ (매우 멋있다고 생각할 때)
- 예 2. 대담한 ----- 1 - 2 - 3 - ④✓ - 5 - 6 - 7 ----- 소심한
↳ (보통정도라고 생각할 때)
- 예 3. 고상한 ----- 1 - 2 - 3 - 4 - 5 - 6 - ⑦✓ ----- 천박한
↳ (매우 천박하고 생각할 때)

사진번호 P1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능력있는	1	2	3	4	5	6	7	능력없는
2.캐주얼한	1	2	3	4	5	6	7	포말한
3.개성적인	1	2	3	4	5	6	7	평범한
6.지적인	1	2	3	4	5	6	7	지적이지 않은
7.활동적인	1	2	3	4	5	6	7	비활동적인
8.눈에 띄는	1	2	3	4	5	6	7	눈에 띄지않는
11.자신감있는	1	2	3	4	5	6	7	자신감없는
12.사교적인	1	2	3	4	5	6	7	비사교적인
17.적극적	1	2	3	4	5	6	7	소극적
18.독특한	1	2	3	4	5	6	7	평범한
21.매력있는	1	2	3	4	5	6	7	매력없는
23.남성적	1	2	3	4	5	6	7	여성적
24.부드러운	1	2	3	4	5	6	7	딱딱한
25.자연스러운	1	2	3	4	5	6	7	부자연스러운
26.차가운	1	2	3	4	5	6	7	따뜻한
27.세련된	1	2	3	4	5	6	7	촌스러운

* 이 사진의 옷차림에 적합한 연령은 몇 살 정도
라고 생각합니까? 세 뒷장으로

사진번호 P15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능력있는	1	2	3	4	5	6	7	능력없는		
2.캐주얼한	1	2	3	4	5	6	7	포말한		
3.개성적인	1	2	3	4	5	6	7	평범한		
6.지적인	1	2	3	4	5	6	7	지적이지 않은		
7.활동적인	1	2	3	4	5	6	7	비활동적인		
8.눈에 띄는	1	2	3	4	5	6	7	눈에 띄지않는		
11.자신감있는	1	2	3	4	5	6	7	자신감없는		
12.사교적인	1	2	3	4	5	6	7	비사교적인		
17.적극적	1	2	3	4	5	6	7	소극적		
18.독특한	1	2	3	4	5	6	7	평범한		
21.매력있는	1	2	3	4	5	6	7	매력없는		
23.남성적	1	2	3	4	5	6	7	여성적		
24.부드러운	1	2	3	4	5	6	7	딱딱한		
25.자연스러운	1	2	3	4	5	6	7	부자연스러운		
26.차가운	1	2	3	4	5	6	7	따뜻한		
27.세련된	1	2	3	4	5	6	7	촌스러운		

* 이 사진의 옷차림에 적합한 연령은 몇 살 정도
라고 생각합니까? _____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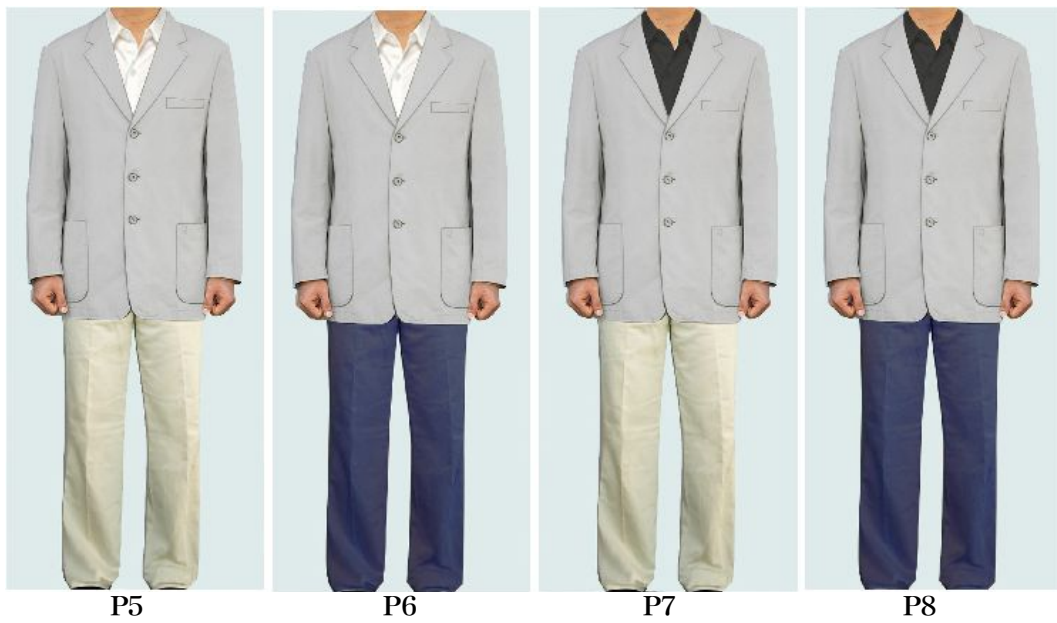
* 다음은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만 _____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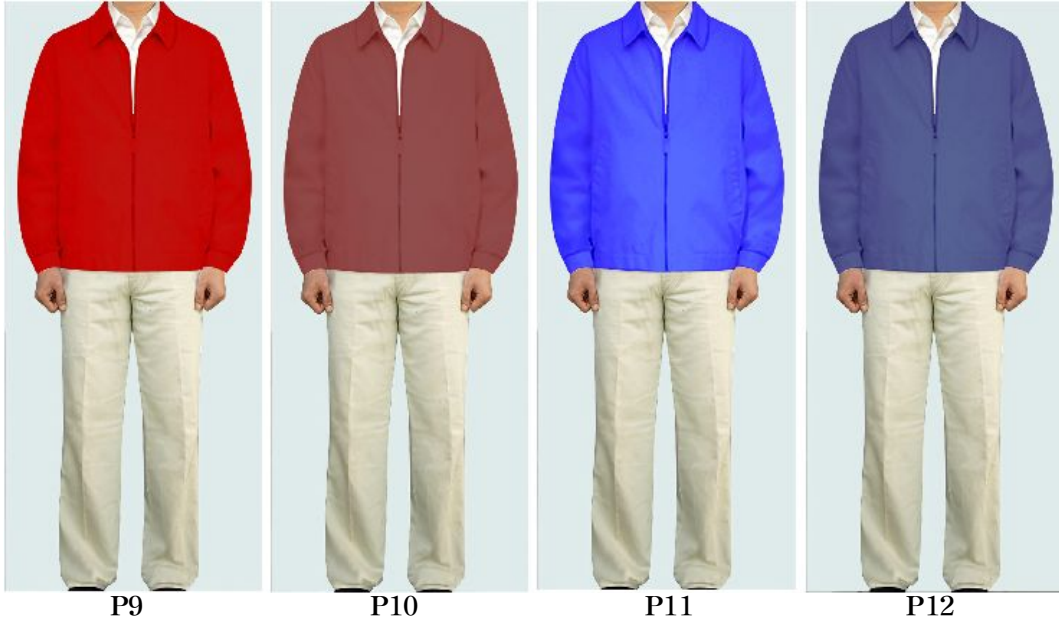
2. 귀하의 전공은?

- ① 인문계() ② 사회계() ③ 자연계() ④ 예체능계()

<부록 3> 사진 자극물



<그림 9> 사진 자극물 P1-P8



<그림 10> 사진 자극물 P9-P16



<그림 11> 사진 자극물 P17-P20